

汗과 小便을 중심으로 太陰人 肝受熱裏熱病과 少陽人 胃受熱裏熱病의 病理에 대한 비교 考察

김명균* · 박성식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Abstract

Comparison the Constitutional 「Symptoms of Soyangin's with Taeumin's」 about Sweating and Pissing in the ShinChukbon 『Dongyi Suse Bowon』.

Kim Myung-Gune* · Park Seong-Sik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

1. Purpose

Between 『Hamsan Sachon Dongyi Suse Bowon Gabo Gubon』 and ShinChukbon 『Dongyi Suse Bowon』, there are many differences and changes of contents. It is due to the changes of Dong-Mu's recognition about symptoms. Therefore, this study will aim to compare constitutional symptoms of Soyangin's with Taeumin's about sweating and pissing.

2. Methods

In ShinChukbon 『Dongyi Suse Bowon』, I found contents about sweating and pissing, and compared constitutional symptoms of Soyangin's with Taeumin's about sweating and pissing.

3. Result and Conclusion

- 1) In ShinChukbon 『Dongyi Suse Bowon』, I concluded that Soyangin who has interior disease may piss lesser than Soyangin who has ordinary symptoms. Otherwise, Taeumin who has interior disease may piss more than Taeumin who has ordinary symptoms.
- 2) In ShinChukbon 『Dongyi Suse Bowon』, I concluded that Soyangin who has interior disease sweats more than Soyangin who has ordinary symptoms. Otherwise, Taeumin who has interior disease may sweat lesser than Taeumin who has ordinary symptoms.
- 3) The results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Soyangin with Taeumin on ShinChukbon 『Dongyi Suse Bowon』. More studies are demanded in other writings of Dong-Mu's.

Key words: Soyangin, Taeumin, 『Dongyi Suse Bowon』 ShinChukbon, Dong-Mu's recognition.

I. 서론

東武 李濟馬는 인간의 체질적인 유형을 太陽人,

少陽人, 太陰人, 少陰人으로 구분하고 각 체질의 생리와 병리 그리고 치료 및 양생법을 연구하여 『東醫壽世保元』을 저술하였다.¹⁾ 『東醫壽世保元』이 저술된 이후 四象醫學은 證治醫學의 틀속에서

접수일 2004년 3월 30일; 승인일 2004년 4월 17일

* 교신저자: 김 명 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87-2

Tel: +82-31-710-3723 Fax: +82-31-710-3780

E-mail: demity95@hotmail.com

1) 박성식. 東醫壽世保元 四象人 表裏病證 篇名에 대한 小考. 사상체질의학회지. 1994;6(1):81.

세인의 관심을 끌며 서서히 한국 고유의 의학으로 그 위치를 잡아가고 있다.²⁾ 그러나 四象醫學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는 만큼 體質證과 體質病證에 대한 여러 방법에서의 접근이 시도되어 혼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³⁾ 이런 혼란을 없애고 四象人의 고유한 病證의 인식을 위하여 여러 가지 시도가 행하여져 왔다. 최 등⁴⁾과 주 등⁵⁾은 『東醫壽世保元』의 각 太少陰陽人篇에 등장하는 病證과 藥理에 대해 기존의학과 비교하여 연구하였으며, 이 등⁶⁾은 大便으로, 하⁷⁾는 汗을 중심으로 하여 각 체질의 病證을 이해하고자 하는 등의 연구가 있어왔다. 최근에는 『咸山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이 발견되어 이 甲午本과 辛丑本을 통한 연구도 활발히 행해지고 있다. 한 등⁸⁾이 발표하였듯이 辛丑本과 甲午本의 病證論에 있어서 조문의 변동과 이동이 나타난다. 이 중 張仲景 傷寒論中 少陽人病 經驗設方藥 十方に 등장하는 腎氣丸은 처방에 관한 조문이 辛丑本에서는 太陰人論에서 甲午本에서는 少陽人論에 나타난다. 이것은 太陰人과 少陽人의 병증에 대한 東武의 인식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저자는 「太陰人 肝受熱裏熱病論」과 「少陽人 胃受熱裏熱病論」의 병증을 비교하여 體質病理를 考察한 바 약간의 지견을 얻었기에 이에 발표하는 바이다.

II. 연구방법

1. 본 연구는 『東醫壽世保元』에서 腎氣丸에 관

- 2) 이수경, 고병희, 송일병. 東醫壽世保元의 文獻的 資料에 근거한 太陰人 病證에 대한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1995;7(1):103.
- 3) 이수경, 송일병. 東醫壽世保元 太陰人 病證論에 관한 研究. 사상체질의학회지. 1999;11(2):4.
- 4) 최지숙, 김경요. 소양인 비수한표한병론의 병증 및 약리에 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998;10(2):61-110
- 5) 주종천, 김경요. 소음인 신수열표열병론의 병증 및 약리에 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997;9(2):67-94.
- 6) 이정찬, 김달래. 大便을 중심으로 한 사상 체질 병증에 대한 고찰. 사상체질의학회지. 1992;4(1):171-7.
- 7) 하만수. 汗을 중심으로 한 體質 病證에 대한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1993;5(1):125-31.
- 8) 한경석, 박성식. 『東醫壽世保元』 甲午本의 病證論에 관한 分析. 사상체질의학회지. 2002;14(1):34-50.

한 조문이 甲午本에서는 少陽人篇에서 등장하지만 辛丑本에서는 太陰人篇에서 등장하게 되는 점에 착안하여 腎氣丸 조문의 이동이 少陽人과 太陰人의 병증 인식에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어 辛丑本 『東醫壽世保元』에 기술된 「太陰人 肝受熱裏熱病論」과 「少陽人 胃受熱裏熱病論」의 病證論의 조문을 바탕으로 太陰人의 裏熱病과 少陽人 裏熱病의 증상 차이를 汗과 小便의 방면에서 비교해 보아 차이를 구분해 보고 그 이면에 흐르는 병증의 인식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2. 『東醫壽世保元』의 1901년 초판본을 사상의학회에서 영인한 판본을 辛丑本이라 칭하고 사용하였다.

3. 비교를 위해 朴性植이 譯解한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을 草本卷이라 칭하고 사용하였다.

4. 비교를 위해 사용한 甲午本은 『咸山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을 통해서 復元한 甲午年의 『東醫壽世保元』을 ‘甲午本’이라 칭하였다.

III. 본 론

辛丑本 『東醫壽世保元』 「太陰人 肝受熱裏熱病論」을 보면 13-22조에 “張仲景曰 消渴病 小便反多 如飲水一斗 小便亦一斗 腎氣丸主之”라는 내용이 등장한다. 이것은 少陽人의 消渴이 아니라 太陰人의 燥熱病이라고 다시 설명하는데, 여기의 腎氣丸은 太陰人篇의 經驗設方에서 언급되지 않고 오히려 少陽人篇 張仲景 傷寒論中 經驗設方 十方에서 나타난다. 병증을 인용하여 설명하는 부분과 처방이 인용된 부분이 다른 편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이 少陽人과 太陰人의 病證의 차이를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던 중 甲午本 『東醫壽世保元』의 「少陽人 內觸大腸病論」에서 상기 조문이 언급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東武가 少陽人의 病證으로 생각하던 것을 경험이 축적되면서 太陰人의 病證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辛丑本 『東醫壽世保元』의 太陰人篇과 少陽人篇의 병증에서 汗과 小便에 관한 내용을 비교해 보았으며 더불어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내용도 참고하였다.

1. 小便으로 살펴본 太陰人과 少陽人의 病證 차이
 辛丑本 『東醫壽世保元』 「太陰人 肝受熱裏熱病論」 “張仲景曰 消渴病 小便反多 如飲水一斗 小便亦一斗 腎氣丸主之”의 조문에서 이것이 과연 어떤 면에서 少陽人의 병태가 아니고 太陰人의 병태인가 하는 면에서 우선 조문에서 관심이 가는 부분은 우선 小便이었다. 甲午本이나 辛丑本에서나 消渴이라는 병은 少陽人의 병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병태 차이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 腎氣丸의 처방에 관한 부분은 辛丑本에서도 少陽人에서 등장하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腎氣丸이 病證과 관계없이 少陽人藥이라서 그렇수도 있고, 東武가 辛丑本으로 넘어가면서 미처 이동하지 못하여서 그렇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하나의 의심되는 사항으로 病態의 차이를 이해할 때 고려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우선 조문의 주요 내용인 小便의 樣相, 回數, 色澤 등의 면에서 다른 『東醫壽世保元』 辛丑本 조문을 살펴보아 東武의 병태 인식을 살펴보았다.

『東醫壽世保元』 辛丑本 「少陽人 胃受熱裏熱病論」에서 “陽明證 小便不利 脈浮而渴者 猪苓湯 主之”⁹⁾하여 少陽人의 裏熱病에 小便이 不利함을 우선 제시하고 뒤이은 조문에서 “...其脈 雖伏 按之滑者 爲裏熱 或飲水 或揚手擲足. 煩躁 不得眠 大便秘 小便赤 外證 多昏憤...”¹⁰⁾라 하여 소변이 붉고 수월하게 나가지 않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또한 少陰人 裏寒證과 少陽人 裏熱證을 비교하여 논한 부분에서 “...若復引飲 小便赤則 可畏也. 泄瀉 揚手擲足則 大畏也.”¹¹⁾라고 하여 小便이 붉

은 것이 다소 꺼리는 증상임을 나타내고 있다. 정리하면 少陽人의 裏熱病에서는 小便이 다소 不利하거나 붉은 증상이 나타나며 이것은 裏熱病의 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東醫壽世保元』 辛丑本에 제시된 치험례를 살펴보면 『東醫壽世保元』 「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에 “...其翌日 用荊防地黃湯 加石膏四錢 二貼連服 安睡而 能通小便...病勢遂危 頭汗不出 小便秘結 口嚙冰片 不省人事 爻象 可惡矣 勢無奈何...小便通三碗 狂證不止 然 知人看面 稍有知覺...”¹²⁾이라는 치험을 제시하여 증상이 악화될 시에 大便이 막힐 뿐 아니라 小便이 잘 통하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고 小便이 통하는 증상이 나타나면서 다소 호전이 되는 예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少陽人의 병의 예후에 대하여 “...浮腫爲病...大畏 小便赤也. 小便清則 浮腫解 小便赤則 浮腫結.”¹³⁾이라는 조문을 제시하여 少陽人에서 小便이 붉은 상태는 좋지 않으며 소변이 맑아지게 되면 병이 풀리게 되는 병증 인식과 小便으로 少陽人의 병증의 輕重과 예후를 파악할 수도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少陽人에서 胃受熱裏熱病의 병태에서 大便이 막히는 것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小便이 붉어지거나 不利해 지는 증상이 같이 나타나며 大便과 小便이 풀리면서 裏熱病이 해소됨을 알

凡 少陽人 表病 有頭痛則 自是表病明白 易見之初證也. 若復引飲 小便赤則 可畏也. 泄瀉 揚手擲足則 大畏也.”

9) 『東醫壽世保元』 辛丑本 「少陽人 胃受熱裏熱病論」 “陽明證 小便不利 脈浮而渴者 猪苓湯 主之”
 10) 『東醫壽世保元』 辛丑本 「少陽人 胃受熱裏熱病論」 “朱肱曰 陽厥者 初得病 必身熱頭痛 外有陽證 至四五日 方發厥 厥至半日 却身熱 蓋 熱氣深 方能發厥 若 微厥 却發熱者 熱甚故也. 其脈 雖伏 按之滑者 爲裏熱 或飲水 或揚手擲足. 煩躁 不得眠 大便秘 小便赤 外證 多昏憤 用白虎湯”
 11) 『東醫壽世保元』 辛丑本 「少陽人 胃受熱裏熱病論」 “少陰人 裡寒病 臍腹冷證 受病之初 已有腹鳴泄瀉之機驗而 其機 甚顯則 病執證易見而 用藥可早也. 少陽人 裡熱病 胸膈熱證 受病之初 雖有胸煩悶燥之機驗而 其機 不甚顯則 病執證難見而 用藥太晚也. 若使 少陽人 胸煩悶燥之驗 顯然露出 使人可覺則 其病已險而 難爲措手矣.”

12) 『東醫壽世保元』 辛丑本 「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 “其後 又有少陽人 十七歲 女兒 素證 間有悖氣 食滯 腹痛矣 忽一日 頭痛 寒熱 食滯 有醫 用蘇合元三箇 薑湯調下...其翌日 用荊防地黃湯 加石膏四錢 二貼連服 安睡而 能通小便...病勢遂危 頭汗不出 小便秘結 口嚙冰片 不省人事 爻象 可惡矣 勢無奈何...小便通三碗 狂證不止 然 知人看面 稍有知覺...”
 13) 『東醫壽世保元』 辛丑本 「少陽人 泛論」 “浮腫爲病 急治則 生 不急治則 危 用藥早則 易愈 用藥不早則 孟浪死也. 此病 外勢平緩 似不速死故 人必易之. 此病 實是急證 四五日內 必治之疾 謾不可十日論之也. 浮腫 初發 當用 木通大安湯 或 荊防地黃湯 加 木通 日再服則 六七日內 浮腫必解. 浮腫 解後 百日內 必用 荊防地黃湯 加 木通 二三錢 每日 一二貼用之 以清小便 以防再發 再發難治. 浮腫 初解 飲食 尤宜忍飢而 小食 若 如平人大食則 必不免再發. 大畏 小便赤也 小便清則 浮腫解 小便赤則 浮腫結”

수 있다.

『東醫壽世保元』辛丑本에서 「太陰人 肝受熱裏熱病論」에서 小便과 관련된 조문은 “…消渴病 小便反多 如飲水一斗 小便亦一斗…”¹⁴⁾라 하여 마시는 것에 비하여 小便이 오히려 많이 나온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이어지는 조문에서 “…二陽結 謂之消 飲一渡二 死不治.”¹⁵⁾라고 하여 마시는 것에 비하여 小便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다음에 이어지는 太陰人의 치험례에서 “…嘗治 太陰人 年五十近衰者 燥熱病 引飲 小便多 大便秘者…”¹⁶⁾의 조문을 제시하여 太陰人의 裏熱病에서는 大便이 막히는 증상과 동반하여 많이 마시고 小便이 많아지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조문의 뒷부분에 “무릇 太陰人이 大便이 막히고 小便이 많다고 생각되며 물이 많이 먹히거든 빨리 약을 써서 예방하여야 한다”고 하여 太陰人이 大便이 막히면서 小便이 많은 증상을 보이면 좋지 않은 증상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太陰人의 臟局이 太陽人의 臟局과 서로 비교되어 설명된다는 것을 전제로 太陽人의 조문과 『東醫壽世保元』의 다른 조문을 보면 『東醫壽世保元』 「太陽人 內觸小腸病論」에 “太陽人 大便一則 宜滑也 二則 宜體大而多也. 小便 一則 宜多也 二則 宜數也…”¹⁷⁾이라 하였고, 또 『東醫壽世

保元』 「四象人 辨證論」에 “太陽人 小便旺多則 完實而無病…”¹⁸⁾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太陽人의 약한 장부인 肝의 吸聚之氣가 상대적으로 좋아진 상태를 건강 상태로 본다면 太陽人에서 小便이 왕성한 것이 完實無病한 것이며, 小便이 많고 자주 보는 것이 마땅하고 좋은 것이라고 한 것은 즉 肝의 기운이 강해진 증거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반대로 太陰人에서 肝의 기능이 항진된 경우에도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太陰人에서 마시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小便을 자주 보게 되는 것은 좋지 않은 증상에 속하게 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太陰人 「肝受熱裏熱病論」 太陰人에 浮腫이 있는 경우 淋病이나 小便不利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여¹⁹⁾, 太陰人에서는 단순히 裏熱病이 심해질 때 소변이 많아지는 양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변이 불리해질 수도 있음을 이야기 하고 있다.

위에서 少陽人에서는 小便이 적고 붉은 것이 좋지 않은 것이며, 太陰人에서는 小便不利 뿐 아니라 마시는 것에 비해 小便이 많은 것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다. 이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 辛丑本 『東醫壽世保元』과 유사한 조문이 많이 볼 수 있는데 “太陽, 少陽人은 大小便滑利하면 吉하고, 太陰, 少陰人은 大小便滑利하면 不吉하다.”²⁰⁾고 하였고 또 “少陽人病은 小便赤黃하면 其病이 進하고, 太陽人病은 小便赤黃하면 其病이 退한다.”²¹⁾고 하였다. 이는 앞에서 확인한 것과 같은 내

14) 『東醫壽世保元』辛丑本 「太陰人 肝受熱裏熱病論」 “張仲景曰 消渴病 小便反多 如飲水一斗 小便亦一斗 腎氣丸主之.”

15) 『東醫壽世保元』辛丑本 「太陰人 肝受熱裏熱病論」 “靈樞曰 二陽結 謂之消 飲一渡二 死不治”

16) 『東醫壽世保元』辛丑本에서 「太陰人 肝受熱裏熱病論」 “嘗治 太陰人 年五十近衰者 燥熱病 引飲 小便多 大便秘者 用 熱多寒少湯 用 藥本二錢 大黃一錢 二十貼 得效矣 後一月餘 用他醫藥五貼 此人 更病復用 熱多寒少湯 加 藥本 大黃 五六十貼 用藥時間 其病 僅僅支撐 後終不免死. 又嘗治 太陰人 年少者 燥熱病 用此方 三百貼 得支撐一周年 此病 亦不免死. 此人 得病 一周年 或問 用他醫藥方 未知緣何故也. 蓋 燥熱 至於飲一渡二而 病劇則 難治. 凡 太陰人 大便秘燥 小便覺多 引飲者 不可不早治豫防.”

17) 『東醫壽世保元』辛丑本 「太陽人 內觸小腸病論」 “太陽人 大便一則 宜滑也 二則 宜體大而多也. 小便 一則 宜多也 二則 宜數也. 面色 宜白 不宜黑 肌肉 宜瘦 不宜肥. 鳩尾下 不宜有塊 塊小則 病輕而 其塊易消. 塊大則 病重而 其塊難消.”

18) 『東醫壽世保元』 「四象人 辨證論」 “太陽人 小便旺多則 完實而無病. 太陰人 汗液通暢則 完實而無病. 少陽人 大便善通則 完實而無病. 少陰人 飲食善化則 完實而無病.”

19) 『東醫壽世保元』辛丑本 「太陰人 肝受熱裏熱病論」 “凡 太陰人病 若待浮腫已發而 治之則 十病九死也. 此病 不可 以病論之而 以死論之 可也. 然則 如之何其可也. 凡 太陰人 勞心焦思 屢謀不成者 或有久泄久痢 或淋病小便不利 食後痞滿脚腿無力 皆浮腫之漸 已爲重陰病而 此時 以浮腫論而 蕩滌慾火 恭敬其心 用藥治之 可也.”

20)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病變 第五統」 “太陽少陽 大小便滑利則 吉. 太陰少陰 大小便滑利則 不吉.”

21)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病變 第五統」 “少陽人病 小便赤黃則 其病進. 太陽人病 小便赤黃則 其病退也. 少陰之病 面色膩滓則 其病進也. 太陰之病 面

용이다. 또한 四象人의 예후에 관하여 “...太陰之小便秘澁 雖非歇證 終非危證.”²²⁾이라 하여 위의 조문에서도 『東醫壽世保元』 辛丑本과 유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전의 연구에서도 각 체질의 病證에서 小便病證 차이에 대한 연구는 있어왔다. 김 등²³⁾은 논문에서 문헌 고찰 결과 위열이 상하로 熾盛하여 煩躁, 頭痛, 小便不利, 便秘를 거의 대부분 동반하는 少陽人 胃熱證과 ‘呼散之氣 不足-吸聚之氣 太過’로 인해 내부에 燥와 熱이 발생함으로써 目疼, 鼻乾, 咽痛, 飲一洩二 등의 특징을 보이는 太陰人 肝熱證으로 구분이 가능함을 논하였다. 또 김 등²⁴⁾은 논문에서 小便辨證의 내용이 少陰人, 少陽人, 太陰人에서 모두 존재하나 그 원인과 치법이 다르게 나타나나, 小便不利에 사용되는 약물이 거의 少陽人 藥으로 少陽人이 水道가 不利하기 쉽다고 하였으며, 傷寒論의 病證과 비교해 볼 때 利水劑를 사용할 病證은 주로 少陽人 病證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이는 본 논술의 내용과 일치한다.

결국 太陰人은 타 체질에 비해 小便이 滑利한 것이 좋지 않으며(不吉), 小便이 다소 秘澁하더라도 危證이 아닐 수 있다 라는 것이며, 少陽人에서는 小便이 滑利하면 좋으며(吉), 小便이 赤黃한 것은 병이 진행한다는 것이다. 즉 少陽人 裏熱病에서 小便이 다소 不利해 지고 赤澁해 지는 증상이 나타나며 이것은 좋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太陰人 燥熱病에서는 마시는 것에 비해 小便이 다소 많아질 수 있으며, 小便不利 뿐 아니라 小便이 滑利해도 좋지 않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2. 汗出의 양상으로 살펴본 太陰人과 少陽人의 病證 차이

汗出이라는 것은 『東醫壽世保元』에 등장하는

色膩滓則 其病退也.”

- 22)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病變 第五統」 “少陽之冷滯 少陰之燥渴 太陽之大便不通 太陰之小便秘澁 雖非歇證 終非危證”
- 23) 김종열, 김경요. 太陰人 裏熱病의 病證 藥理에 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998;10(2):111-50.
- 24) 김선호, 김달래. 小便辨證의 四象醫學的 觀點과 傷寒論의 觀點에 對한 比較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1992;4(1):179-86.

四象人의 小便, 大便, 消化, 汗出의 네 가지 完實 無病의 지표 중의 하나이며, 大便과 消化가 인체에서 水穀을 出納하는 면을 관찰하는 데 중요한 지표라면 小便과 汗出은 인체의 氣液의 呼吸의 면을 관찰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생각되기 때문에 小便과 관련하여 汗出의 양상을 비교하였다.

『東醫壽世保元』에서 少陽人의 汗出에 관한 조문을 살펴보면 小便에 관한 조문이 일정한 원칙을 보이는 것과는 달리 汗出에 관해서는 汗出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다. 단순히 汗의 유무로 裏熱病을 다 전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東醫壽世保元』 「少陽人 胃受熱裏熱病論」 “... 太陽病 八九日 如瘧狀 發熱惡寒 熱多寒少 脈微而惡寒者 此 陰陽俱虛 不可更發汗 更下 更吐 面色 反有熱色者 未欲解也 不能得小汗出 身必痒...”²⁵⁾의 내용에서 땀이 나오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少陽人이 裏熱病 초기에 惡寒과 不汗出의 증상이 있을 수 있으며, 이것이 진행되면서 양상이 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 辛丑本의 少陽人 裏熱病에 관한 조문에서는 汗出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東醫壽世保元』 「少陽人 胃受熱裏熱病論」에서 “...三陽合病 頭痛面垢 譫語遺尿 中外俱熱 自汗煩渴 腹痛身重...”²⁶⁾이라 하여 기본적으로 汗出이 나타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른 조문에서 “少陽人 胃受熱則 大便燥也 脾受寒則 泄瀉也...胃熱證 大便 三晝夜不通而 汗出則 清陽將渴而 危境也.”²⁷⁾이라 하여 少陽人 裏熱病에서 大便이 不通할 뿐만 아니라 땀이 나면 清陽이 다한 것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논하고 있다.

또한 “...一童子 自嬰至童 盜汗七年 諸藥不效

25) 『東醫壽世保元』 「少陽人 胃受熱裏熱病論」 “張仲景曰 太陽病 八九日 如瘧狀 發熱惡寒 熱多寒少 脈微而惡寒者 此 陰陽俱虛 不可更發汗 更下 更吐 面色 反有熱色者 未欲解也 不能得小汗出 身必痒 宜桂麻各半湯.”

26) 『東醫壽世保元』 「少陽人 胃受熱裏熱病論」 “三陽合病 頭痛面垢 譫語遺尿 中外俱熱 自汗煩渴 腹痛身重 白虎湯 主之.”

27) 『東醫壽世保元』 「少陽人 胃受熱裏熱病論」 “少陽人 胃受熱則 大便燥也 脾受寒則 泄瀉也. 故 亡陰證 泄瀉 二三日而 大便秘 一晝夜則 清陰將亡而 危境也. 胃熱證 大便 三晝夜不通而 汗出則 清陽將渴而 危境也.”

服涼膈散三日病已.”²⁸⁾의 조문을 제시하고 『東醫壽世保元』 「少陽人 胃受熱裏熱病論」에서 “論曰 少陽人 大腸清陽 快足於胃 充溢於頭面四肢則 汗必不出也. 少陽人汗者 自是陽弱也而 服涼膈散 病已即 上消而 其病 輕也.” 이라고 논하여서 少陽人에서 清陽이 충분하면 땀이 나지 않으며 少陽人의 땀은 陽氣가 약한 것이라고 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결국 少陽人의 裏病의 양태에 있어 초기에 잠시 땀이 없을 수 있으나 裏熱病의 양태가 심해지면서 汗出의 양상을 나타내며 이것은 少陽人의 清陽이 소모되는 증상으로 大便不通과 더불어 중요한 소견으로 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東醫壽世保元』 辛丑本에서 太陰人의 汗出은 「太陰人 胃腕受寒表寒病論」에서는 땀의 양태로 병리를 구분한 점이 많으나 「太陰人 肝受熱裏熱病論」에서는 크게 땀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몇몇의 조문에서 太陰人 裏熱病조에 나타나는 汗出의 대사상황에 대해서 알아 볼 수 있다. 『東醫壽世保元』 「太陰人 肝受熱裏熱病論」의 조문에 “...目疼 鼻乾 潮汗 閉澀 滿渴 狂譫 宜調胃承氣湯...”²⁹⁾이라 하였는데 이 조문에서는 潮汗이라 하여 汗出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음에 이어지는 조문의 인용문에서 “...余發一秘方 名 二聖救苦丸 大黃四兩 猪牙皂角二兩 麵糊和丸 綠豆大 五七十丸. 一服即 汗 一汗即 愈 稟壯者 百發百中...”³⁰⁾이라 하여 太陰人 裏熱病에서 熱이 있는 경우에 二聖救苦丸을 먹이고 이것을 먹은 후 땀이 나면서 병이 풀어졌다는 내용이 기술된다. 이것은 太陰人 裏熱病에서 裏熱

이 풀어질 때 대변이 통할 뿐 아니라 땀이 난다는 것으로 太陰人에서 表病에서뿐 아니라 裏病에서도 治法은 大便을 보게 하지만 땀이 같이 나면서 풀어진다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太陰人의 裏病에서는 땀이 적게 나고 이것이 풀어지면서 땀이 나면 병이 낫는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내용은 또한 太陰人의 表熱病³¹⁾ “太陰人表熱病 亦有汗多 小便赤澀”의 조문과 비교하면 太陰人이 裏熱病 초기에 汗出이 나타나고 소변이 다소 赤澀한 증상이 나타나다가 裏病이 더욱 진행하면 汗出이 줄어들고 마시는 것에 비해 小便이 많아지는 양상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된다. 좀 더 많은 조문을 가지고 연구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IV. 결 론

『東醫壽世保元』 辛丑本の 「太陰人 肝受熱裏熱病論」과 「少陽人 胃受熱裏熱病論」에 나타난 病證의 증상을 小便과 汗出의 관점에서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少陽人과 太陰人의 裏熱病에서 병이 심해짐에 따라 소변의 양상이 다르다. 少陽人의 裏熱病에서는 小便이 澀하고 不利한 양상을 나타내며, 裏熱病이 심해질수록 大便이 더욱 不通해 짐과 더불어 小便도 더욱 不利해지는 양상을 나타낸다. 太陰人에서는 裏熱病이 심해질수록 마시는 것에 비해 소변이 많이 나올 수 있으며, 小便不利도 나타날 수 있다.

2. 少陽人과 太陰人의 裏熱病에서 병이 심해짐에 따라 汗出의 양상이 차이가 난다. 少陽人의 裏熱病에서는 초기에는 땀이 별로 나지 않을 수 있으나, 裏熱病이 심해지면서 땀이 많이 나는 양상을 나타내며, 盜汗과 같은 땀의 양상도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은 清陽이 소모되는 증상으로 危證으로 진행함을 의미한다. 太陰人의 裏熱病에서 초

28) 『東醫壽世保元』 「少陽人 胃受熱裏熱病論」 “王好古曰 一童子 自嬰至童 盜汗七年 諸藥不效 服涼膈散三日 病已.”

29) 『東醫壽世保元』 「太陰人 肝受熱裏熱病論」 “李樾曰 微惡寒 發熱 宜葛根解肌湯. 目疼 鼻乾 潮汗 閉澀 滿渴 狂譫 宜調胃承氣湯. 熱在表則 目疼 不眠 宜解肌湯. 熱入裏則 狂譫 宜調胃承氣湯.”

30) 『東醫壽世保元』 「太陰人 肝受熱裏熱病論」 “萬歷丙戌 余寓大梁 瘟疫大作 土民多斃 其證 增寒壯熱 頭面項頰赤腫 咽喉腫痛 昏愦. 余發一秘方 名 二聖救苦丸 大黃四兩 猪牙皂角二兩 麵糊和丸 綠豆大 五七十丸. 一服即 汗 一汗即 愈 稟壯者 百發百中. 皂角開竅 發其表 大黃 瀉諸火 通其裏.”

31) 『東醫壽世保元』 「少陰人 腎受熱表熱病論」 “亡陽病證 非但 觀於汗也 必 觀於小便多少也. 若 小便清利 而自汗出則 脾約病也 此險證也. 小便赤澀而自汗出則 陽明病 發熱汗多也 此危證也. 然 少陽人 裡熱證 太陰人 表熱證 亦有汗多而 小便赤澀者 宜察之 不可誤藥.”

기에는 땀이 날 수 있으나 裏熱病이 진행하면서 땀이 적게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은 大便이 막히는 것과 더불어 裏熱病이 危證으로 진행함을 의미한다.

3. 『東醫壽世保元』辛丑本の 少陽人과 太陰人의 증상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少陰人과 太陽人의 病證에 대해서도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임상적으로 소변의 樣相, 回數, 色澤 등 小便不利에 대해 좀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V. 참고문헌

1.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 四象醫學會刊行. 大星文化社. 1998
2. 韓敏甲筆, 李濟馬原著. 咸山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筆寫本. 1940
3.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復元本. 四象體質醫學會. 2001
4. 朴性植 譯解. 李濟馬 原著.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集文堂. 2003
5. 박성식. 東醫壽世保元 四象人 表裏病證 篇名에 대한 小考. 사상체질의학회지. 1994;6(1):81-7
6. 이수경, 고병희, 송일병. 東醫壽世保元의 文獻的 資料에 근거한 太陰人 病證에 대한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1995;7(1):103-15.
7. 이수경, 송일병. 東醫壽世保元 太陰人 病證論에 관한 研究. 사상체질의학회지. 1999;11(2):4-26.
8. 최지숙, 김경요. 소양인 비수한표한병론의 병증 및 약리에 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998;10(2):61-110.
9. 주종천, 김경요. 소음인 신수열표열병론의 병증 및 약리에 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997;9(2):67-94.
10. 이정찬, 김달래. 大便을 중심으로 한 사상체질 병증에 대한 고찰. 사상체질의학회지. 1992;4(1):171-7.
11. 하만수. 汗을 중심으로 한 體質 病證에 대한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1993;5(1):125-31.
12. 한경석, 박성식. 『東醫壽世保元』甲午本の 病證論에 관한 分析. 사상체질의학회지. 2002;14(1):34-50.
13. 김종열, 김경요. 太陰人 裏熱病의 病證 藥理에 대한 研究. 사상체질의학회지. 1998;10(2):111-50.
14. 김선호, 김달래. 小便辨證의 四象醫學的 觀點과 傷寒論的 觀點에 對한 比較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1992;4(1):179-86.
15. 박은경, 이영섭, 박성식. 의사결정나무법을 이용한 체질진단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13(2):144-55.